

- 작가의 후기 -

‘궁 안의 연꽃-숙빈 최씨’



백소연 (시인·극작가)

1676년(숙종2년)을 기점으로 영조 등극까지의 숙빈 최씨의 삶을 그린 연극이다. 전북 정읍문화원에서는 문화제 발족 계획 하에 매년 역사에 족적을 남긴 분들의 삶은 발자취를 찾아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연극단원들 모두 특정된 전문인이 아니라 일상에서 직업을 가진 일반인들로 구성 되어 있다. 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7년 12월 9일 정읍 연지사아트홀에서 공연한 ‘궁 안의 연꽃-숙빈 최씨’도 역사적 사실 근거 하에 창작된 조선 역사 中 영조 어머니에 대한 내용을 테마(Thema)로 빚어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시킨 연극이다. 숙빈 최씨에 대한 자료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고, 연극으로 무대에 올린 흔적도 찾기 힘들어 그 가치가 새롭다. 또한 지역마다 다른 의미와 해석이 존재하나 더욱 지대한 관심과 연구를 기울여야 할 문화적 가치가 충분한 부분이기도 하다.

극의 막 오름은 전북정읍에 기록된 태인의 대각대리로부터 시작된다. 그곳은 현재 피항정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숙빈 최씨는 인현 왕후가 궁으로 들어갈 때 데리고 들어간 사비(寺婢)이다. 1689년 기사환국의 여파로 인현왕후가 폐서인 된 후, 숙종과 인연이 되어 영조를 탄생시킨 모후이기도 하다. 1718년 꽃피는 4월 숙빈 최씨가 운명할 때까지, 숙종의 정척 하에 왕후에 오르지 못하는 비운의 여인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정척의 환란과 필박 속에서도 꿋꿋하고 이해롭게 영조를 키워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한 시대의 정경과 정척 속의 여인들의 삶! 왕을 중심으로 한 여벌정쟁과 남존여비 사상과 정치적 야망 앞에 무참히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연적(戀戚) 간의 엇갈린 운명! 지난해 화경숙빈 최씨의 삶은 서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의 정쟁과 정책 속에서 견디고 지키며 끝끝내 지켜내야만 했던 인고(忍苦)의 시간이었다.

조선왕조 21대를 이은 영조

1724년의 ‘탕평책’과 ‘균역법’은 진흙 발 연꽃 삶을 살아온 한 여인의 모태로부터 탄생시킨 고통의 분신은 아니었을까.

시대와 시대 속의 탄생은 예측 못한 또 다른 아픔과 비극을 낳기도 하였지만 뿌리는 모국어와 같으므로 그 모든 흔적을 찾아 시대를 반추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못사람의 눈을 타지 않는 응송같은 곳에 자리한 구종궁궐 안의 여인들의 삶! 그것은 흘러간 시대의 상징이요 내의 음양의 정치적 계략의 또 다른 모양새이기도 하여서 21세기에 도래한 이 시대의 반성과 교훈의 지점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

조선왕조의 일대기를 무대에 올려 연출하기란 쉽지 않았고, 그 한계점에 맞닥트려져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무쪼록 문화적 가치를 좇아가는 이 길 위의 시선이 좀더 깊어지고, 섬세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과 연출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강철비’ 흥행 청신호...극장가 겨울대전 승기 잡았다



영화 ‘강철비’가 무서운 흥행세를 보이며 겨울 극장가의 북명으로 떠올랐다.

지난 14일 개봉한 ‘강철비’는 개봉 3일째인 지난 16일 약 53만 관객을 동원하며 100만 고지를 넘어섰고 개봉 4일째인 지난 17일에는 관객 수 약 55만 명을 기록하며 162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는 역대 12월 최고 흥행작인 ‘국제시장’과 ‘변호인’보다 빠른 흥행 속도다.

이로써 ‘강철비’는 올겨울 한국 영화 대작 박매치에서 먼저 승기를 잡았다. 오는 20일 개봉하는 ‘신과함께’와 27일 개봉하는 ‘1987’보다 먼저 극장가를 선점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당초 ‘강철비’는 20일에 개봉하기로 했으나 14일로 개봉일을 앞당긴 것이 주요했던 것 같기에 영화를 본 관객들의 입소문이 더해져 더 큰 시너지를 내고 있다.

‘강철비’가 관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던 비결 중 하나는 비현실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탄탄한 스토리다. 그간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영화들이 있었지만 특히 ‘강철비’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의 미묘한 관계성을 균형있게 그려냈다. 국제정세에 관심이 없던 관객들도 ‘강철비’를 통해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했다.

이렇듯 ‘강철비’는 북한 내 쿠데

타가 발생하고 권력 1호가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펼쳐지는 첩보 액션 블록버스터라는 무거운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재미도 놓치지 않았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과학우 역을 맡은곽도원은 영화 곳곳에서 유머를 발휘해 러블리한 매력을 뽐내며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분위기를 완화시킨다. 영화 중간 중간 임팩트 있게 등장하는 지드래곤의 노래들도 반가움을 더한다.

북한 최정호원인 임철우 역을 맡은 정우성 역시 더욱 업그레이드된 액션 연기와 깊은 감정 연기까지 자유자재로 소화하며 인생 캐릭터를 경신했다. 두 사람 외에도 ‘강철비’에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관객들의 시선을 붙잡는다. 특히 북한 1호를 집요하게 쫓는 암살 요원을 연기한 조우진은 비교적 많지 않은 분량에도 강렬한 연기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처럼 승승장구 하고 있는 ‘강철비’에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영과 확보다. ‘신과함께’와 ‘1987’이라는 대작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 관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

마지막 리운드로, 무한도전 박명수와 정준하가 ‘코빅’ 막내 도전의 일환으로 꾸민 코너 ‘자연인 하와수’가 방송됐으며, ‘리얼극장 선택’에 이취재가 특별출연해 조심으로 돌아간 개그를 선보여 폭소를 던졌다.

한편 ‘코빅’은 2017년 4쿼터에서 ‘리얼극장 선택’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으며, 내년 2018년 1월 7일 저녁 7시40분에 더욱 신선한 웃음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코미디 빅리그’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

‘코미디 빅리그’가 박명수·정준하의 합입어 최고시청률을 달성했다.

지난 17일 저녁 7시 40분에 방송된 tvN ‘코미디 빅리그(이하 ‘코빅’) 245회가 케이블, 위성, IPTV를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 평균시청률 3.6%, 최고 시청률 5.2%로 동

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이번 쿼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2049타깃 시청률에서는 평균 시청률 3%, 최고 시청률 4.1%로 역대 ‘코빅’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해 유종의 미를 거뒀다. (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기준)

‘코빅’ 245회에서는 2017년 4쿼터

21년 세월 지운 ‘세상에서’, 원미경이라 가능했다

21년을 뛰어넘은 ‘세상에서’가 가장 아름다운 이별. 그 중심에는 배우 원미경이 있었다.

지난 17일 종영한 tvN 4부작 드라마 ‘세상에서’가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서는 이별을 준비하는 인희(원미경 분)와 가족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앞에 걸린 인희는 자신의 병에 충격 받았지만, 죽음을 예감하고 조급속 가족들과 이별을 준비했다. 자신의 생명보험은 도박을 일삼는 동생 근덕(유재명 분) 앞으로 해놓고, 그의 아내 양순(염혜란 분)에게는 “내 동생 옆에 있어달라”고 철없는 동생을 부탁했다. 양순도, 근덕도 뒤늦게 인희의 병을 알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인희의 남편 정철(유동근 분)과 딸 연수(최자우 분), 아들 정수(최민호 분)는 인희와의 이별 앞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연수는 “효도하고 싶었다”고 눈물을 흘렸고, 정철은 “남보다 두 배는 고생한 사람 일찍 좋은 곳으로 가는거보다 그렇게 믿기로 했다”며 딸을 위로했다. 이들은 웃으며 인희와 이별하기로 다짐했다.

인희의 시모(김영옥 분)는 치매 때문에 끝까지 인희의 마음 속 아픈 손가락이 됐다. 정철은 정신을 놓고 인희에게 몽둥이를 휘두른 자신의 어머니를 끌고 방안에 못질을 하며 분노와 슬픔을 드러냈다. 인희는 시모에게 “나와 같이 가지”며 오열하면서, 끝내 가족들에게 마지막까지 시모의 걱정을 털어냈다.



인희는 그토록 가고 싶어하던 가평 집에서 숨을 거뒀다. 인희는 남편과 딸,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다. 남편 정철의 곁에서 깨지 않는 잠에 든 인희는 가족들과 그렇게 이별했다. 끝까지 가족만을 생각했던 인희의 마지막에 시청자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1986년 작품인 ‘세상에서’가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21년이 지나 리메이크 됐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때문에, 과연 리메이크작 또한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을지 한편의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스토리의 힘은 강했고, 배우들의 연기는 명품이었다. 21년의 세월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리메이크였다.

배우 원미경은 작품의 한 가운데에서 중심축을 이끌고 간 인물이다. 가족 때문에 울고 울었던 주부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가족만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원

미경이 아니었으면 과연 표현될 수 있었을까 싶다. 원미경의 연기는 인희 그 자체였다.

원미경은 14년간 브라운관을 떠나 있다가 지난해 드라마 ‘가희와 사성’으로 배우로서 복귀했다. 연이따라 떠나있는 동안은 오롯이 엄마로 살았다.

아이들을 위해 배우로서의 인기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원미경의 삶은 어딘지 인희와 닮아있다. 아이들과 남편을 바라보며 웃을 것인 인희의 미소가 꾸밈없었던 이유였다.

원미경의 연기는 ‘세상에서’가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완성시킨 마지막 집이었다. 국민 배우 유동근이나, 21년 전과 마찬가지로 치매 어머니 연기를 맡아 눈물샘을 자극시킨 김영옥, ‘눈물의 여왕’ 최지우 등 베테랑 배우들과 더불어, 원미경이 있었기에 ‘세상에서’가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탄생될 수 있었다.

‘개콘’ 新코너 ‘버스킹 어게인’, 신선한 웃음 선사



KBS2 ‘개그콘서트’가 버스킹을 주제로 한 새 코너 ‘버스킹 어게인’을 선보였다.

17일 방송된 ‘버스킹 어게인’에서는 개그맨 장기영, 김태원 이승환, 임성욱, 조진제가 호흡을 맞췄다. 장기영과 김태원이 30년째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는 ‘무등산’ 팀으로 이승환과 임성욱, 조진제는 청춘 버스킹팀인 ‘쓰리 소울’로 변신해 각자의 목소리를 어필했다.

기타를 준비한 장기영은 김태원을 소개하며 “이영자 아니죠? 양희은 아니죠? 김정은 아니죠? 그냥 김씨입니다. 김광석 씨의 노래

며 편승엽의 ‘찬찬찬’ MR을 들었다. 하지만 ‘쓰리 소울’이 간주 부분에서 ‘거북선’의 랩을 하며 방해했고 김태원도 ‘찬찬찬’이 아닌 ‘거북선’ 가사로 노래를 부르자 “노래가 거북선에 빨리 들어가 버렸다”며 한탄해 폭소를 자아냈다.

두 팀의 신경전이 계속되자 장기영은 “내가 30년 동안 여기서 유명한 가수들의 탄생을 지켜왔다”며 유대민화를 꺼내들어 “어, 희열야”라고 말해 ‘쓰리 소울’의 관심을 끌었지만 “빨리 허라 빨리 해”라는 말에 실랑감을 드러냈다.

기대감이 끝나지 않자 마지막으로 장기영은 관객들에게 선택권을 넘겼다. 장기영은 관객들이 좋아하는 팀이 남고 싫어하는 팀이 떠나자고 제안하면서 “무등산의 노래가 좋다면 소리 질러”라며 호응을 유도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쓰리 소울이 좋으면 불 질러”라며 방해해 재미를 더했다.

‘개그콘서트’는 매주 일요일 오후 9시 15분 방송된다.



오늘의 순세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음력 11월 2일)

- ▶**새해** 지나친 감정 표출은 억제하고 안정을 취하라. 모든 일이 순조로워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자만에 빠질까 염려된다. 6, 7, 9월생 수입이 좋지만, 지출 또한 많아 이득이 없으니 자중할 것. 신경성 질환이나 두통 주의.
- ▶**새해** 어려운 시대가 지나고 좋은 날이 다가오니 쌓아둔 감정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시도하라 지나치게 큰 욕심은 손실을 면할 수 없으니 ㄱ, ㄲ, ㅋ 성씨는 지혜롭게 투자하라. 지금은 상승할 운세지만, 조심성 또한 필요하다.
- ▶**새해** 욕심 내지 말고 느긋하게 대처하라. 인간 관계로 충돌을 피하고, 두 길이라면 가지 말고 오직 한길만 택하라. 모든 것이 내 것임을 알라. ㄴ, ㄷ, ㄹ 성씨 추진하는 일 순조롭게 성사됐고 자만에 빠지면 퇴보하는 격이다. 앞만 보고 달려라.
- ▶**새해** 망설임이나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잡을 수 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손을 내밀라. 그래야 때 후회 없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소신껏 밀고 나아가라. 동북쪽에서 좋은 소식 전해오니 미래는 매우 길하다.
- ▶**새해** 3, 5, 9월생 금전을 택하거나 친구를 잃고, 친구를 택하거나 금전 손실이 따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입장이구나. 현재는 약간 고통이 따르나 인내하면 반드시 둘다 얻을 수 있다.
- ▶**새해** 과감하게 마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오늘이다. 인정에 끌리지 않으면 소망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크고 넓게 이루어질 수 있다. 금전으로 형제 간 다툼이 예상되니 가정의 소중한 맺음을 분명히 할 때다.
- ▶**새해** 하고 싶은 일은 많으나 노력 없는 하나도 이루지 못 한다. 작은 일부터 만족하며 노력할 때 뜻밖 바를 이룰 수 있다. ㄴ, ㄹ, ㅂ 성씨는 부모나 형제에게 지나친 관심을 삼가고 가정에 깊은 배려를 베풀라. 자녀들이 탈선하고 있다.
- ▶**새해**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 생각하면서도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 정신적인 위축감으로 모든 일 또한 지체할 듯. 원대한 포부만 갖고, ‘나도 되겠다’하는 안일한 생각은 잊으라. 각고를 이기는 것이 살아가는 상책이다.
- ▶**새해** 순조로운 진행을 원한다면 오늘 일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도운의 손길로 이득이 따른다. 속임수에 조심하고, 타인을 무시하기에 앞서 아량에 힘쓰라. 11월생은 2, 8월생을 경계함이 좋을 듯.
- ▶**새해** 지금껏 계획한 일의 성과를 유감없이 발휘할 때. 동쪽 사람의 도움으로 작은 일이 큰 소득을 만들어 준다. 4, 7, 10월생 형제 간 다툼으로 정신적 안정이 안 되니 먼 길 운전은 삼가고, 휴식을 취하면서 마음을 정리하라.
- ▶**새해**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자신의 속마음이 진실됨을 보여라. 금전 고통이 있으나 남과 함께 뛰니 물질적인 면에도 차차 만족을 느낀다. 먼 미래를 향해 매사 넓은 아량이 요구된다. 4, 5, 6월생 빨간색을 입되 검은색은 피하라.
- ▶**새해** 어렵고 힘든 때를 생각해 지금 즐거움에 만족하지 말고 준비하라. 가정이 원만해야 모든 것이 안정된다. 애정은 연상이나 연하를 주의할 것. 천천히 다가감의 좋을 듯.